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동향

- I. 주요국 경제 동향
- II. 국내 경제 동향
-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6255-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홍성준
(6255-5709)
sj_hong@koreaexim.go.kr

I. 주요국 경제 동향

1. 미국

□ 경기 확장국면 지속으로 기준금리 인상(12.19)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은 유틸리티와 광공업 생산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ISM 제조업지수는 신규 주문, 재고, 고용 부문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상승, 소매판매는 전자제품과 가구 등을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

*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8.8) 61.3 → (9) 59.8 → (10) 57.7 → (11) 59.3

- (수출입) 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2,110억 달러, 수입은 8.5% 증가한 2,665억 달러, 무역적자는 18.1% 증가한 555억 달러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이며, 대중 무역적자(상품 및 서비스)는 43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 (고용·물가) 11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및 교통 비용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 10월 근원PCE물가지수는 연준 목표치 (2%) 미달

*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18.7) 2.0 → (8) 1.9 → (9) 1.9 → (10) 1.8

- 최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연방정부 셋다운(12.22)으로, 미 증시 및 달러화 가치 급락 등 글로벌 시장 불안 심화

2. 중국

□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생산·소비·수출 등 경제 지표 둔화

- (산업동향) 11월 산업생산은 자동차, 에틸렌 생산 부진에 따라 시장예상치 (5.9%)를 하회하는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소매판매는 자동차, 통신기기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며 2003년 5월 이후 최저 증가폭 기록,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확장 기준선(50) 수준으로 하락

* 제조업 PMI(기준=50): ('18.8) 51.3 → (9) 50.8 → (10) 50.2 → (11) 50.0

- (수출입)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한 2,274억 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1,827억 달러로 수출입 증가폭 급감(대미 무역흑자(상품) : 356억 달러)
- 위안화 기준으로는 11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11.0%, 8.5% 증가
- (물가) 11월 소비자물가는 식품, 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상승

3. 유로존

□ 경기 둔화 불구 예정대로 양적완화 종료 발표(2.0%→1.9%)

- (산업동향) 10월 산업생산은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증가, 소매판매는 식품과 의류 등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증가, 11월 제조업 PMI*는 경기확장 기준선(50)을 상회하였으나 확장속도 둔화 지속
- * 제조업 PMI(기준=50): ('18.8) 54.6 → (9) 53.2 → (10) 52.0 → (11) 51.8
- (수출입) 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한 2,198억 달러, 수입은 8.2% 증가한 2,057억 달러로 141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 유로화 기준으로는 10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7.6%, 11.5% 증가
- (고용·물가) 10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8.1%로 2008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 유지, 11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9% 상승, 에너지와 비가공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대비 소폭 둔화(1.3% → 1.2%)로 양적완화 종료 선언

4. 일본

□ 글로벌 경기 둔화로 2018년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1.5%→0.9%) (일 정부)

- (산업동향) 10월 산업생산은 일반기계, 전자부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증가, 소매판매는 자동차와 연료 판매 중심으로 증가, 11월 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하락하며 2017년 8월 이후 최저치 기록
- * 제조업 PMI(기준=50): ('18.8) 52.5 → (9) 52.5 → (10) 52.9 → (11) 52.2
- (수출입) 11월 수출은 일반기계와 전자제품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한 602억 달러, 수입은 원유, 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로 10.7% 증가한 645억 달러 기록하며 전월대비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25.4억 달러 → 43.3억 달러)
- 엔화 기준으로는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1% 증가, 수입은 12.5% 증가
- (고용·물가) 10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1%p 상승한 2.4%,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1.4% 상승하며 저물가 지속
- 10월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증가로 인해 1.62배(구직자 100명당 162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하락

해외 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 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2/4	3/4 ²⁾	9월	10월	11월	
미국	GDP성장률(전기비)	1.6	2.2	0.4	0.7	0.7	0.6	0.5	1.0	0.9	-	-	-
	산업생산(전기비)	△1.9	1.6	0.2	1.2	△0.4	1.9	0.6	1.3	1.2	0.1	△0.2	0.6
	소매판매(전기비)	2.9	4.7	1.5	0.6	1.1	2.3	0.4	1.8	1.1	△0.2	1.1	0.2
	수출(전년동기비)	△2.2	6.1	6.7	5.4	4.6	7.8	7.1	9.6	6.8	6.6	6.3	-
	수입(전년동기비)	△1.7	6.8	6.9	6.6	5.4	8.4	8.5	7.5	9.2	9.5	8.5	-
	실업률	4.9	4.4	4.7	4.3	4.3	4.1	4.1	3.9	3.8	3.7	3.7	3.7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3	2.1	2.6	1.9	2.0	2.1	2.3	2.6	2.6	2.3	2.5	2.2
유로지역	GDP성장률(전기비)	1.9	2.4	0.7	0.7	0.7	0.7	0.4	0.4	0.2	-	-	-
	산업생산(전기비)	1.6	2.9	0.2	0.9	1.7	1.1	△0.6	0.2	0.1	△0.6	0.2	-
	소매판매(전기비)	1.6	2.3	0.4	0.8	0.4	0.3	0.1	0.8	△0.1	△0.5	0.3	-
	수출(전년동기비)	0.3	11.0	4.7	7.2	13.5	18.7	19.0	9.6	2.9	1.1	4.4	-
	수입(전년동기비)	△1.2	13.9	7.8	11.7	15.5	20.6	19.0	11.6	7.7	8.2	8.2	-
	실업률	10.0	9.1	9.5	9.2	9.0	8.7	8.5	8.3	8.1	8.1	8.1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1.5	1.8	1.5	1.4	1.4	1.2	1.7	2.1	2.1	2.2	1.9
일본	GDP성장률(전기비)	1.0	1.7	0.8	0.5	0.7	0.4	△0.3	0.7	△0.6	-	-	-
	산업생산(전기비)	0.2	2.9	△0.3	1.9	△0.1	1.2	△1.1	1.2	△1.4	△0.4	2.9	-
	소매판매(전기비)	△0.6	1.9	△4.9	0.7	△0.4	6.9	△5.4	0.5	0.5	0.1	1.3	-
	수출(전년동기비)	0.9	8.6	12.8	6.2	6.1	12.6	9.3	9.7	3.4	2.1	5.2	△1.1
	수입(전년동기비)	△8.3	9.7	11.9	10.9	6.7	15.4	12.8	10.5	10.9	8.6	15.4	10.7
	실업률	3.1	2.8	2.9	2.9	2.8	2.7	2.5	2.4	2.4	2.3	2.4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0.5	0.3	0.4	0.6	0.6	1.3	0.7	1.1	1.2	1.4	-
중국	GDP성장률(전기비)	6.7	6.9	1.5	1.8	1.8	1.5	1.5	1.7	1.6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0	6.6	6.8	6.9	6.3	6.2	6.1	6.6	6.0	5.8	5.9	5.4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4	10.2	10.2	10.8	10.3	9.9	9.7	9.0	9.0	9.2	8.6	8.1
	수출(전년동기비)	△6.6	6.5	3.2	6.6	6.1	9.4	13.7	11.5	11.8	14.4	15.5	5.4
	수입(전년동기비)	△5.3	16.1	23.6	13.8	15.1	13.2	19.4	20.6	20.4	14.5	20.8	3.0
	실업률 ¹⁾	4.0	3.9	4.0	4.0	4.0	3.9	3.9	3.8	3.8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0	1.6	1.4	1.4	1.6	1.8	2.2	1.8	2.3	2.5	2.5	2.2

주 : 1)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후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 가능
 2) 7~9월 누계기준
 3)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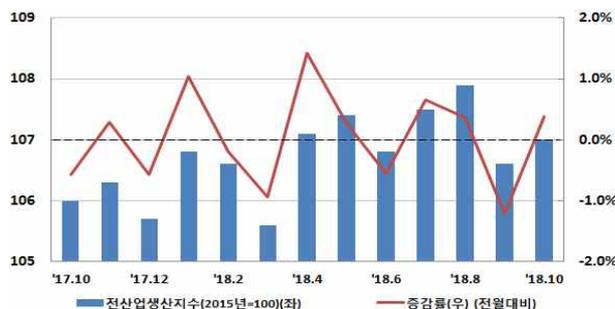
II. 국내 경제 동향

1. 산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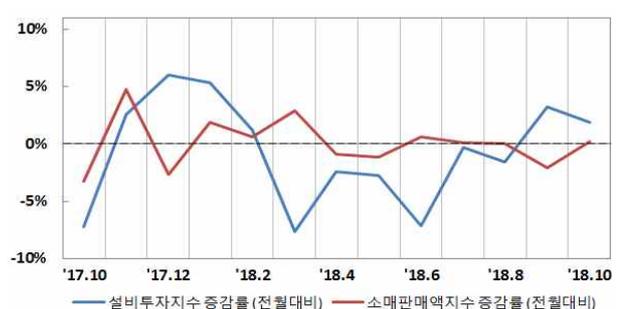
□ 생산·소비·설비투자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경기 부진 지속

- (생산)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생산이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전월대비 증가
 - 광공업생산은 금속가공, 선박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 증가,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
-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의복 등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증가
 - 10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7%), 의복 등 준내구재(0.4%)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
- (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증가,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 부진으로 전월대비 감소
 - 10월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0.0%)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1.9% 증가, 기계수주는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7.6% 증가
 - 10월 건설기성(불변)은 최근 수주 부진 등에 따른 일반토목 및 주거용건물 공사 실적 감소로 전월대비 2.2% 감소한 반면,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경기)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98.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하락한 98.8(2015=100)을 기록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 지속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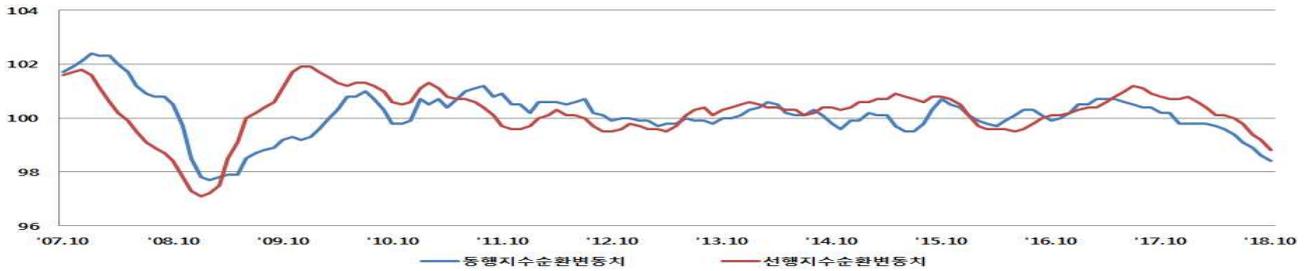
전산업생산지수



소비·투자지수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 수출입 현황

□ 수출은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으로 안정적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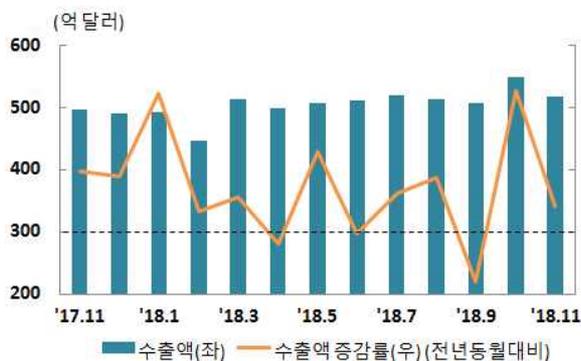
- 11월 수출은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으로 역대 3위 기록인 518억 달러 달성(전년동월대비 4.1% 증가), 사상 최초 7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
- 반도체(11.6%)·석유제품(23.5%)·선박(158.4%) 등에서 증가, 자동차(△2.0%)·디스플레이(△10.0%)·무선통신기기(△42.2%) 등에서 감소

□ 수입은 유가 상승과 소비재 수입 확대 등으로 10%대 증가율 기록

- 11월 수입은 유가 상승과 의약품 등 소비재 수입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468억 달러 기록
- 반도체 제조용 장비·전동기와 발전기 등 자본재(△12.2%)에서 감소하였으나,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27.9%), 의약품·소고기 등 소비재(3.0%) 등에서 증가

* 전년동월대비 원유 도입단가 41.1%, 수입액 38.3% 증가

수출 추이



수입 추이



3. 고용 및 물가

□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실업자 수 감소 등으로 개선

-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8년 1월 이후 최대치
 - 11월 취업자는 2,718만명, 고용률(OECD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7.1%
 -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증가세로 11월 전체 취업자 수는 16만 5천명 증가
- 실업자 수 4개월 연속 감소세
 - 11월 실업자 90만 9천명,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3.2% 기록
 - 11월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한 7.9%, 체감실업률은 0.2%p 상승한 21.6%, 고용률은 1.7%p 상승한 43.2%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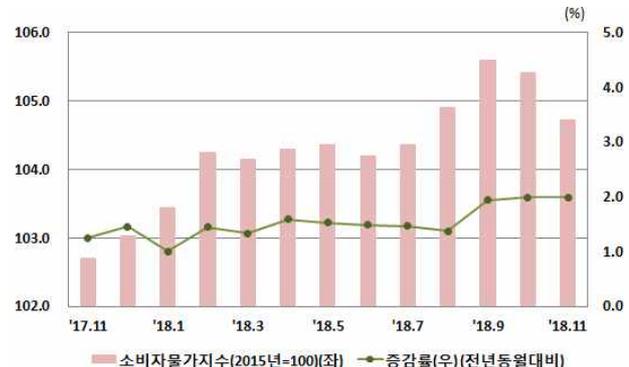
□ 물가는 2개월 연속 한은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하며 한은 물가안정목표(2%) 수준 기록
 - 식료품·비주류음료(5.4%), 교통(2.6%) 등 10개 부문 상승, 보건(△0.2%), 통신(△1.9%)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3.4%), 식품 이외(1.5%)에서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

고용 추이



소비자물가 추이



국내 경제 주요 지표

구 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전기비%)	2.9	3.1	1.0	0.6	1.4	△0.2	1.0	0.6	0.6	-	-	-
전산업생산지수 ¹⁾	103.0	105.5	105.5	105.3	106.2	106.0	106.3	107.1	107.3	106.6	107.0	-
증감률(전기비%)	3.0	2.3	1.3	△0.2	0.9	△0.2	0.3	0.8	0.2	△1.2	0.4	-
소매판매액지수 ¹⁾	103.9	105.9	104.8	105.8	106.0	107.0	110.2	111.0	110.3	108.8	109.0	-
증감률(전기비%)	3.9	1.9	0.4	1.0	0.2	0.9	3.0	0.7	△0.6	△2.1	0.2	-
설비투자지수 ¹⁾	110.7	126.3	124.5	128.3	128.6	126.4	137.0	121.9	114.5	116.4	118.6	-
증감률(전기비%)	△1.3	14.1	6.0	3.1	0.2	△1.7	8.4	△11.0	△6.1	3.3	1.9	-
수출액(억불) ²⁾	4,954	5,737	1,321	1,470	1,511	1,435	1,451	1,516	1,536	506	549	518
증감률(전년동기비%)	△5.9	15.8	14.6	16.7	24.0	8.4	9.8	3.1	1.7	△8.1	22.6	4.1
수입액(억불) ²⁾	4,062	4,785	1,164	1,178	1,209	1,234	1,324	1,331	1,303	410	485	468
증감률(전년동기비%)	△6.9	17.8	24.1	18.6	17.9	11.6	13.7	13.0	7.8	△1.6	28.1	11.5
실업률 ³⁾ (%)	3.7	3.7	4.3	3.8	3.4	3.2	4.3	3.9	3.8	3.6	3.5	3.2
소비자물가지수 ⁴⁾	101.0	102.9	102.7	102.7	103.3	103.1	104.0	104.3	105.0	105.6	105.4	104.7
증감률(전년동기비%)	1.0	1.9	2.1	1.9	2.3	1.5	1.3	1.6	1.6	1.9	2.0	2.0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 관세청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동향

□ 미국 단기금리 상승세와 장기금리 하락세에 따른 금리 스프레드 축소 심화

- 단기금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12.19)으로 상승세, 10년물 국채 금리는 2019년 금리인상 횡수 감소 전망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하락세
- 미국 국채(3M,%): (11.1) 2.315 → (12.3) 2.332 → (12.12) 2.417 → (12.21) 2.376
- 미국 국채(10Y,%): (11.1) 3.130 → (12.3) 2.970 → (12.12) 2.910 → (12.21) 2.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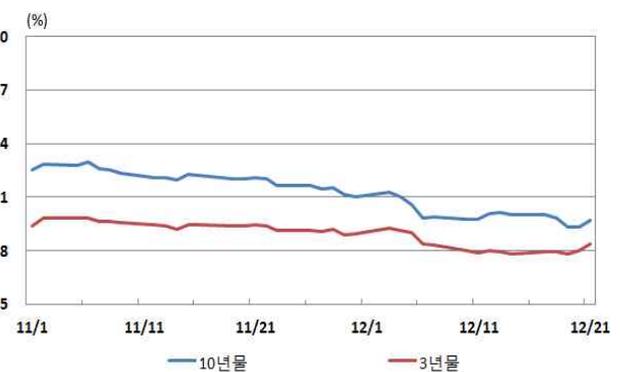
□ 한국 국고채금리는 중장기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금리 스프레드 축소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11.30)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12월 국고채 발행 축소, 미·중간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
- 국고채(3Y,%): (11.1) 1.942 → (12.3) 1.924 → (12.12) 1.803 → (12.21) 1.838
- 국고채(10Y,%): (11.1) 2.251 → (12.3) 2.128 → (12.12) 2.010 → (12.21) 1.970

최근 미국 국채금리(10년물/3개월물)



최근 한국 국고채 금리(10년물/3년물)



2. 환율 동향

□ 유로화환율은 미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전망과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로 소폭 상승

-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전망과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종료와 이탈리아 수정 예산안 합의* 등 유럽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로 상승

* 유럽연합·이탈리아, 수정 예산안 합의(12.20)

- 달러/유로: (11.1) 1.141 → (12.3) 1.135 → (12.12) 1.137 → (12.21) 1.137

□ 엔화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미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사로 하락세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미 연준 2019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변경 가능성에 따른 미국·일본 금리차 추가 확대 우려 감소 등으로 하락세

- 엔/달러: (11.1) 112.7 → (12.3) 113.7 → (12.12) 113.3 → (12.21) 111.2

□ 원달러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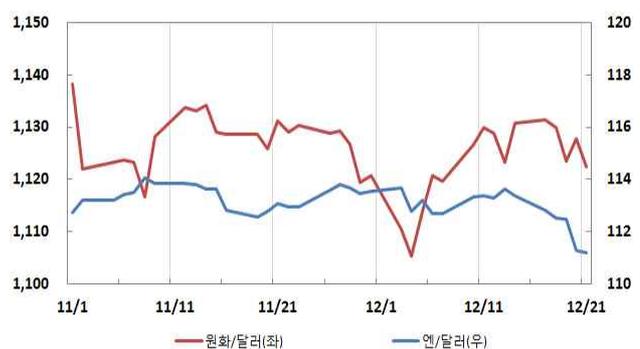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11.30)과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원달러환율 상승

- 원화/달러: (11.1) 1,138 → (12.3) 1,111 → (12.12) 1,129 → (12.21) 1,123

유로화환율(對달러)



달러환율(對원화, 對엔화)



3. 주가 동향

□ 다우존스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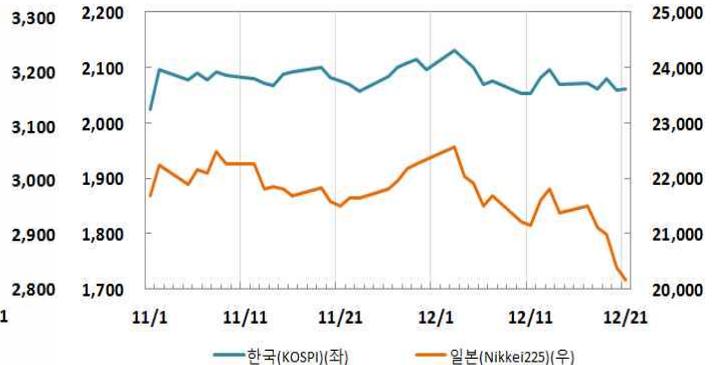
- 중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지표 둔화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및 미 정부 섣다운 우려 등으로 급락
- (코스피) 미·중 무역분쟁 우려 지속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하락세

구 분		'18.11.1	'18.12.3	'18.12.21
미국	Dow Jones	25,381	25,826	22,445
유로	Euro Stoxx	3,204	3,215	3,001
한국	KOSPI	2,024	2,132	2,061
일본	Nikkei225	21,688	22,575	20,166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국제 금융시장 주요지표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12.21	
금리 (%)	정책	미국 FF 금리 ¹⁾	0.5-0.75	0.75-1.0	1.0-1.25		1.25-1.5	1.5-1.75	1.75-2.0	2.0-2.25	2.25-2.50
		일본 IOER 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MRO 금리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²⁾	0.497	0.752	1.011	1.041	1.376	1.700	1.912	2.196	2.376
		미국 국채(10Y) ²⁾	2.444	2.387	2.304	2.334	2.405	2.739	2.860	3.061	2.790
		일본 국채(10Y) ³⁾	0.043	0.067	0.086	0.062	0.047	0.043	0.040	0.134	0.053
	국내 ⁴⁾	국 고 채 (3 Y)	1.638	1.662	1.698	1.888	2.135	2.216	2.122	2.005	1.838
		국 고 채 (1 0 Y)	2.074	2.177	2.214	2.379	2.469	2.624	2.556	2.357	1.970
	국제 환율 ⁵⁾	¥ / U S \$	117.0	111.4	112.4	112.5	112.7	106.3	110.8	113.7	111.2
U S \$ / €		1.052	1.065	1.143	1.181	1.201	1.232	1.168	1.160	1.137	
원화 환율 ⁵⁾	₩ / U S \$	1,206	1,118	1,144	1,145	1,067	1,064	1,115	1,109	1,123	
	₩ / 1 0 0 ¥	1,031	1,004	1,019	1,018	947	1,000	1,007	976	1,013	
주가 ⁵⁾	미국 Dow Jones	19,763	20,663	21,350	22,405	24,719	24,103	24,271	26,458	22,445	
	일본 Nikkei225	19,114	18,909	20,033	20,356	22,765	21,454	22,305	24,120	20,166	
	유로 Euro Stoxx	3,291	3,501	3,442	3,595	3,504	3,362	3,396	3,399	3,001	
	코스피	2,026	2,160	2,392	2,394	2,467	2,446	2,326	2,343	2,061	
	코스닥	631	619	669	653	798	871	818	822	674	

주 : 1) '17.03.15, '17.06.14, '17.12.13, '18.03.21, '18.06.13, '18.09.26, '18.12.19 각각 0.25bp 인상
 2) 블룸버그 집계(BGN, Bloomberg Generic Price) 미국 일반국채 수익률(3개월, 10년)
 3) 일본 재무성, Japanese Government Bonds
 4)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블룸버그

자료 : 블룸버그, 일본 재무성, 금융투자협회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1.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

□ 유가는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 지속

-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OPEC 등 산유국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러시아,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 생산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공급과잉 우려 확대
- 12월 셋째 주 미국 원유 시추기 수는 883개로,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주대비 10개 증가로 EIA는 1월 미국 주요 셰일지역 원유생산량이 전월대비 13.4만 b/d 증가한 816.6만 b/d가 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12월 생산량은 1,142만 b/d로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증가
- 미국 등 세계 원유재고 증가도 유가하락에 일조
- 12월 둘째 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35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PEC은 세계 원유재고가 2019년 상반기 5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등 전세계 증시 하락세로 글로벌 경기부진 우려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 우려감 지속 역시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며, 12월말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초반대로 하락

□ 천연가스 가격은 따뜻한 날씨 예보로 mmBtu당 4달러대에서 3달러 후반대로 하락

- 12월말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중순 mmBtu당 4달러 후반대로 급등했던 가스 가격이 12월 들어 3달러 후반대로 하락
-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세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연료탄 가격은 글로벌 수요 둔화, 생산증가 등으로 가격 소폭 하락

- 중국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및 겨울철 온난한 기후 예보 등으로 세계 연료탄 수입 수요 둔화,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 증가로 12월초 톤당 100달러선에서 소폭 하락

2.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은 수요둔화 우려로 하락

-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미·중 무역 리스크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전기동 가격이 하락하여 톤당 6,000달러선 붕괴

□ 니켈은 투자 수요 부진, 공급 확대 우려 등으로 하락

- 미국 달러화 강세, 유가하락세 전환, 중국 경기부진 등 거시경제 요인과 함께 필리핀 니켈광산 규제 완화조짐에 따른 공급 확대 우려로 가격 하락

□ 아연은 투자 수요 위축으로 하락

- 유가하락,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수요 위축으로 아연 가격 하락

□ 철광석은 중국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

- 겨울철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둔화와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품위 철광석 수요 증가와 글로벌 철강재 생산 증가세 등으로 소폭 상승

□ 우라늄은 글로벌 감산 정책, 원전 수요 회복으로 상승

- 올해 초부터 시작한 메이저 우라늄 생산기업(Cameco, Kazatomprom 등)의 감산 정책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 과잉 완화, 중국 신규원전 건설 증대, 일본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효과 등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증가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1/4	2/4	3/4	12.21.
유가 (\$/배럴)	Brent	37.28	56.82	66.87	69.34	79.23	82.73	53.82
	WTI	37.04	53.72	60.42	64.94	74.15	73.25	45.89
	Dubai	32.19	53.83	64.33	65.33	75.86	80.03	53.51
천연가스(\$/백만BTU*)		2.337	3.724	2.953	2.733	2.924	3.008	3.816
연료탄(전력용)(\$/ton)		51.58	92.00	104.88	91.36	115.3	113.03	98.33
우라늄(\$/lb)		34.4	20.4	23.9	21.0	22.7	27.5	28.75
전기동(\$/ton)		4,701	5,501	7,157	6,720	6,645	6,180	5,987
니켈(\$/ton)		8,700	10,035	12,260	13,245	14,910	12,480	10,785
아연(\$/ton)		1,616	2,563	3,289	3,309	2,948	2,573	2,585
철광석(\$/ton)		43.57	78.87	72.61	63.12	65.02	69.24	72.26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l)

기준 유종	2017	2018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50.79	62.90	68.07	69.69	60.05	65.18
Brent	54.15	66.84	74.53	75.02	69.12	71.40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8년 12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1. 조선

□ 11월 조선 수주 부진 지속

- 11월 기준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64.2% 증가한 1,090만CGT
- 11월 수주는 LNG선 2척과 중소형 Feeder 컨테이너 4척 등 총 8척에 그쳐 4분기 이후 다소 부진한 수주 실적 지속
- 11월 수주량은 30만CGT로 전년 동월대비 51.8% 감소한 수준
- 11월 기준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9.3% 증가한 218.5억 달러
- 11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57.5% 감소한 5.4억 달러

□ 11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04 point 하락한 129.79(Clarkson)

- 4분기 들어 신조선가격은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11월에도 지속

□ 11월 누적 선박(해양플랜트 포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8.4% 감소한 180.6억 달러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8.4% 증가한 20.8억 달러이며, 전년 동월 인도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이상 현상으로 당월 수출증가율이 크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수출 부진은 지속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10월	11월
수주실적	332.5 (△27.3)	241.2 (△27.5)	44.4 (△81.6)	172.6 (288.8)	218.5 (39.3)	74.0 (259.9)	51.7 (△23.3)	82.5 (70.3)	4.9 (△37.1)	5.4 (△57.5)
수출실적	398.9 (7.3)	401.7 (0.7)	342.7 (△14.6)	421.8 (23.1)	180.6 (△58.4)	69.0 (△1.1)	39.1 (△76.9)	36.9 (△68.3)	14.8 (△55.0)	20.8 (158.4)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 자원개발

□ 북미 셰일기업들, 저유가 영향으로 2019년 예산 축소 전망

- 12월 중순 WTI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로 급락하며 대다수 미국 셰일기업들이 내년도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
- Anadarko가 내년 예산 3% 절감을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BP, Chevron, Whitecap Resources 등 자산운용사들도 투자계획 및 예산 재검토 중
- 2017년 이후 유가상승 회복세로 Wood Mackenzie 등 주요기관들은 2019년 셰일산업 호황 및 투자 증가를 전망했으나 최근 유가급락과 그에 따른 기업 동향에 비추어 투자 유지 또는 감소로 전망 조정 움직임
- Devon 등 일부 기업들은 올해 자사주 매입(buy-back)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나, 향후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지출 행위가 필요한 의사결정이 우선적으로 제한될 전망

3. 해외건설

□ 11월 해외건설 수주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 2018년 11월 수주액은 2017년 11월 수주 부진(9.2억 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20.8억 달러 기록
- 11월까지 지역별 수주액을 살펴보면 중동 지역 수주액은 71백만 달러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수주액이 19.1억 달러로 11월까지 수주액의 92% 차지
- 2019년에도 중동 수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이 해외 건설 수주 전략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10월	11월
수주실적	660 (1.2)	461 (△30.1)	282 (△38.8)	290 (2.8)	262.5 (11.6)	102.3 (9.1)	73.0 (5.0)	47.1 (△6.0)	19.3 (51.9)	20.8 (126)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4. ICT

□ ICT 수출은 연간 최초로 2,000억 달러 돌파했으나 수출증가율은 25개월 만에 하락세 전환

- 11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182.9억 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97.6억 달러, 수지는 85.3억 달러 흑자 달성
- 대중국 수출은 디스플레이(△30.3%), 휴대폰(△66.4%), 반도체(△4.3%)의 부진으로 수출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2.2% 감소
-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80.5억 달러, 16.9%) 호황이 지속되면서 107.9억 달러 (10.6%)를 기록했으며 7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 수출을 달성
- 디스플레이는 OLED(13.4%) 수출은 증가했으나 LCD(△30.4%) 수출이 경쟁심화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3% 감소한 22.8억 달러 기록
- 휴대폰은 완제품(△43.9%)과 부분품(△48.7%) 수출 동반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6.7% 감소한 10.3억 달러 기록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9월	10월	11월
수출실적	1,762.3 (2.1)	1,728.8 (△1.9)	1,625.0 (△6.0)	1,976.1 (21.6)	2,044.5 (13.7)	523.1 (18.9)	546.5 (16.7)	590.2 (12.6)	202.8 (5.3)	202.1 (12.3)	182.9 (△1.7)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태양광

□ 11월 태양광 수출은 전월에 이어 부진 지속

- 11월 폴리실리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6.7% 감소한 0.52억 달러
- 폴리실리콘 가격이 \$9/kg대를 유지하는 등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폴리실리콘 기업 수출 및 수익성 악화 지속
- 11월 모듈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42.2% 감소한 1.15억 달러 기록
- 12월 들어서면서 수요 증가로 인해 모듈 가격이 반등하고 있어 12월 모듈 수출은 전월 대비 개선될 전망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1/4	2/4	3/4	10월	11월
태양전지/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19.1 (1.6)	15.6 (△7.7)	5.33 (50.5)	3.66 (△12.0)	4.17 (△24.3)	1.35 (△18.7)	1.15 (△42.2)
폴리실리콘/ 잉곳	13.1 (67.5)	12.7 (△3.6)	12.6 (△0.4)	12.5 (△0.8)	7.80 (△30.9)	2.74 (△2.9)	2.46 (△10.5)	1.51 (△54.2)	0.56 (△52.5)	0.52 (△56.7)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중소기업

□ 수출 · 내수 동반 회복으로 생산지수 · 가동률 등 업황 상승

- 10월 중소기업 생산지수 전월대비 11.8%, 평균가동률 1.2%p 상승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추석 명절연휴로 업황이 부진했던 전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97.1) 대비 11.8%, 전년동월(95.3)보다도 14.0% 상승한 108.6 기록
 - 가동률은 '식료품', '음료',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등 5개 업종에서는 하락했지만,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기장비' 등 15개 업종에서 전월보다 상승해, 전월(72.5%) 대비로는 1.2%p, 전년동월(72.3%) 대비로는 1.4%p 상승한 73.7%
- 11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0월보다 0.5p 상승한 81.1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80.8→81.2), 수출판매(83.6→90.0)는 전월대비 상승, 자금사정(77.6→77.1)은 하락
- 11월 중소기업대출(2.7조원 → 4.4조원)은 연말 실적평가에 대비한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폭 확대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생산지수	(2015년 =100)	96.0 (0.8)	102.6 (1.2)	99.5 (1.3)	110.7 (5.3)	102.2 (6.4)	107.7 (4.9)	106.0 (6.5)	103.7 (-6.3)	97.7 (-4.4)	104.9 (-2.6)	99.7 (-5.9)	108.6 (14.0)	-
평균가동률	(%)	72.0	74.0	73.3	73.6	72.7	73.2	73.2	73.1	72.3	73.5	72.7	73.7	-
자금대출	(조원)	9.5	10.1	9.5	1.5	10.3	10.6	14.4	6.2	12.4	8.6	13.9	2.7	4.4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78.1	86.6	83.7	81.1	77.9	84.2	84.5	84.0	79.6	86.1	80.7	80.6	81.1
	내수판매	78.1	85.9	83.1	81.9	77.2	83.7	83.6	82.9	79.4	85.0	79.6	80.8	81.2
	수출판매	77.6	86.7	86.0	84.9	86.8	87.9	88.8	88.4	85.4	90.2	89.3	83.6	90.0
	자금사정	77.0	82.8	81.5	79.0	75.5	79.2	80.1	79.4	75.5	79.9	76.9	77.6	77.1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